

노근리사건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립을 위한 예비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Preliminary Analysis for the No-Gun Ri Massacre Documentation Strategy

김 유 승 (You-seung Kim)**

류 반 디 (Ban-Dee Ryu)***

목 차

1. 들어가는 글	4.4 비판과 의의
2. 선행연구 분석	5. 노근리사건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립을 위한 예비 분석
3. 노근리사건의 개요와 의미	5.1 노근리사건 초점 그룹 분석
4. 도큐멘테이션 전략 이론	5.2 노근리사건 도큐멘테이션의 범주
4.1 개념 및 특징	5.3 향후 과제
4.2 연혁	6. 맺음말
4.3 실행 모델	

<초 록>

본 연구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노근리사건 관련 기록의 평가, 선별 방법으로 삼고, Hackman와 Wornow-Blewett이 제시한 실행 모델에 근거하여 그 첫 단계인 예비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위한 이론 연구로서 노근리사건의 개요를 연혁적으로 정리하고,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특징을 '협력 수집', '특정 영역의 수집', '결락 기록의 생산', '기록화 계획', '자문조직' 등 5가지로 규정한다. 또한 전략의 발전과정과 실행 모델을 논하고, 전략에 대한 비판과 의의를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노근리사건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립을 위한 예비 분석을 실시하여 노근리사건 초점 그룹을 '생존 피해자 및 희생자 유가족', '정부', '시민사회', '학술연구', '인론', '문화예술' 등을 구분하는 한편, 도큐멘테이션 범주를 사건기록, 진상규명활동기록, 추모기록으로 분류한다.

주제어: 노근리사건, 도큐멘테이션, 도큐멘테이션 전략, 사회적 기억, 실천적 아키비스트

<ABSTRACT>

The study reports a preliminary analysis for the No-Gun Ri massacre documentation strategy based on Hackman and Wornow-Blewett's implementation model, as an appraisal and selection method for No-Gun Ri Digital Archives. It intends to review the theoretical background for this process, including a history of the No-Gun Ri massacre and the development of documentation strategy. From the theoretical analysis, this study identified the No Gun Ri documentation strategy processes in 5 categories: "cooperative collecting", "collecting in specific areas", "identifying missing areas" and "advisory group". With these 5 categories, this study discusses the application of the Hackman and Wornow-Blewett's implementation model in the No Gun Ri case and reviews the strategy's pros and cons. As a result, firstly, we classify focusing groups into "victims and bereaved family", "government", "civil society", "the press" and "literature and art". Secondly, we also classify documentation categories into "massacre records", "investigation activity records" and "cherish memory".

Keywords: Nogun-ri Massacre, Documentation, Documentation Strategy, Social Memory, Activist Archivist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2A03066027).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인 <노근리 디지털아카이브 프로젝트>에는 김수진(중앙대학교 박사과정), 김유승(중앙대학교 부교수), 류반디(중앙대학교 박사과정), 박태연(중앙대학교 강사), 신동희(University at Albany 교수), 윤은하(전북대학교 교수)(가나다 순)가 참여하고 있음.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kimyus@cau.ac.kr) (제1저자)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ynyubit@hanmail.net) (공동저자)

■ 접수일: 2015년 10월 26일 ■ 최초심사일: 2015년 10월 30일 ■ 게재확정일: 2015년 11월 16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4), 173-194, 2015. <<http://dx.doi.org/10.14404/JKSARM.2015.15.4.173>>

1. 들어가는 글

‘노근리 디지털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직면한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을 어떻게 수집하고 평가하며 선별할까에 대한 선택이었다. 수집과 평가 및 선별의 범위와 주제 설정은 우리가 구축하는 아카이브에 무엇을 담아낼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전통적 기록관리자의 입장에서 기존의 기록들을 수집하고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노근리사건이 가지는 역사적, 사회정치적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기록들을 찾아나설 것인가? 이 선택 앞에서 우리는 주저 없이 후자를 택하였다.

1990년대 중반 국내외 언론을 통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고, 2004년 『대한민국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근리사건특별법』)¹⁾이 제정되기까지 1950년 7월의 참상과 이후 반세기에 걸친 진상 규명 활동은 철저히 주류 기억에 속하지 못한 대항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이에, 노근리사건의 주류적 기억뿐만 아니라, 산재된 대항 기억의 편린들을 망라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는 책무는 연구팀이 마주한 첫 과제가 되었다.

이는 1970년 미국아키비스트협회(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이하 SAA) 연례회의에서 Howard Zinn(1977)이 ‘Activist Archivist’를 주창한 이래 전개된 아키비스트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맥을 같이 한다. 주류적 기록의 수동적 수집을 극복하고 평범한 민중의 삶을 담아내는 기록화를 능동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키비스트의 사회적 기능과 책임을 논한 Zinn의 문제 제기는 노근리사건을 다루고자 하는 본 연구팀이 직면한 화두였다. 주류의 기억들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노근리사건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이야기들을 사회적 기억으로 남기고자 하는 본 연구팀에게 역사를 재조명하고 형상화하기 위한 아키비스트로서의 능동적 기능과 역할은 외면할 수 없는 요소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능동적 수집을 시도했던 아키비스트들과 마찬가지로, 연구팀은 창의적인 획득 가이드라인 또는 포괄적인 수집 전략의 부재라는 문제에 직면하였다. 실로 방대한 영역에 다양한 형태로 산개되어 있는 노근리사건에 대한 사회적 기억은 문제를 더욱 가중시켰다. 이에 본 연구팀은 이러한 물음의 해답을 도큐멘테이션 전략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노근리 디지털아카이브’ 연구의 일환으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개념을 연혁적으로 살피고, 그 의의를 이론적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노근리 사건’ 기록화를 위한 방법론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 전략 수립을 위한 예비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분석

국내 기록학계에서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다룬 연구는 학문 내 타 주제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히 전개되지 못했다. 도큐멘테이션을

1) 2004년 3월 5일 법률 제7175호로 제정되었음.

다른 초기 국내연구로는 기존 평가선별론에서 제기된 주요 논점을 바탕으로 평가선별 결정과정을 개념화 하고, 이를 통해 평가선별이론의 변화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논한 이승억(2005)의 '기록 평가선별 결정 분석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후 도큐멘테이션 전략에 관한 연구는 지역 기록화를 위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권순명, 이승휘(2009)는 '지역 아카이빙을 위한 기록화 방안 연구'를 통해 지역기록 수집절차를 설계하고 지역 아카이빙의 지속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미영(2009)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특징인 기관 간 협력수집의 가능성과 적극적 기록 생산 및 수집 노력을 보여준 한신, 아와지 대지진 기록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재해 지역 기록화를 연구하였다. 김화경(2012)은 '마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 전략' 연구를 통해 부산 산복도로 아카이브의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다루었다.

2010년 이후,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수용한 지역 기록화 연구의 다수 성과는 설문원에 의해 수행된다. 설문원(2010)은 '지역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역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일환으로 '선택적, 집중적 기록화', '분산보존과 통합적 재현', '열린 구조의 디지털 기록화', '지역 내 협력기관의 영역별 기록화 역할 분담' 등을 제안하였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2011)을 논한 후속 연구를 통해, 지역 내 기록유산기관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로컬리티 기록화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2년에는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안을 개인과 조직의 참여라는 관점에서 논한 연구, 로컬리티에 기반을 둔 기록콘텐츠의 개발 방향을 모색한 연구, 로컬리티 기록화의 원칙, 구조, 절차를 포함한 공간 기반의 모형을 제시한 연구 등을 연이어 제시하였으며(설문원, 2012a, 2012b, 2012c), 이듬해는 네트워크 방식의 기록화 모형을 부산의 공간 기록화에 적용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로컬리티 기록화 방안을 다룬 연구를 내놓았다(설문원, 김정현, 2013). 2014년에는 밀양 고압 송전탑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10년에 걸쳐 경험한 환경갈등을 기록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 '환경갈등의 기록화를 위한 내러티브 설계' 연구를 수행하였다(설문원, 2014).

국내 초기 연구를 선보였던 이승억은 2014년 '동시대의 기록화를 지향하는 보존기록 평가선별에 관한 제언'을 통해, 사회적 주요 사건 또는 공공정책에 관한 기록화를 위해 작동되는 보존 기록 시스템을 논하면서, 기록이 만들어지는 같은 시대에 보존기록을 선별하는 기록화 전략 개발을 제안하며 다시금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논하였다.

그 외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학문적 논의와 성립배경에 대한 소개와 그 사회적 함의에 대한 논의 속에서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논한 윤은하(2012),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활용하여 역대 대통령 기록물의 결락된 부분을 보완하고 장기적 수집 방안을 모색한 오정희, 정연경(2015), 거시적인 차원에서 기관의 본질적인 기능을 정의함으로써 기록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방법론인 기관기능 분석(institutional functional analysis)을 통해

우리나라 국회에 적용 가능한 기록화 영역을 제안한 김장환(2015) 등의 연구성과가 있다.

3. 노근리사건의 개요와 의미

노근리양민학살사건은 “1950년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加里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전쟁범죄다(『노근리사건특별법』 제2조 제1호). 사건은 1950년 7월 23일 정오 즈음, 영동읍 주곡리 마을 주민들에 대한 소개 명령으로 시작된다. 이틀 후인 25일 저녁, 영동읍 입계리에 모인 입계리, 주곡리, 기타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은 미군에 의해 남쪽으로의 피난을 나서게 되고, 26일 정오경 황간면 서송원리 부근에 도착하게 된다. 이때 미군 비행기의 폭격과 기총 소사로 철로 위에 있던 주민 다수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노근리 개근철교로 피신한 주민에 대해 기관총 사격이 가해졌다. 이렇게 시작된 비무장 양민에 대한 공격은 29일 오전까지 이어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40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²⁾

하지만, 이 사건의 참상이 세상에 알려지는데는 생존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들의 반세기 에 가까운 노력이 필요했다. 진상규명활동의 중

심에는 1960년부터 미국과 한국 정부에 대해 지속적 청원을 제기하고, 문학작품을 통해 노근리 사건을 알린 정은용³⁾이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1994년은 노근리사건 진상규명활동의 전환점이 된 해다. 1994년 4월 정은용의 실화소설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가 출간되면서, ‘연합뉴스’를 통해 노근리사건이 최초 보도되었고, 이를 계기로, ‘한겨레신문’, 월간지 ‘말’ 등이 노근리사건의 진상을 알리기 시작했다. 같은 해 6월에는 ‘노근리 미군 민간인학살사건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고, 7월에는 ‘조선인민보’ 관련 기사 등 주요 증거가 발견되는가 하면, AFP를 통해 해외에까지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1999년 9월 AP의 노근리사건 보도가 미국과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⁴⁾ 같은 해 10월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각각 노근리사건 진상규명을 지시하면서, 양국 정부에 의한 진상규명활동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 시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동안 일어난 유사 사건들 중 한미 양국 정부의 진상조사 활동에 나선 유일한 사례로 대표성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왜곡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의 유감 표명은 물론, 특

2) 1994년 생존 피해자와 희생자 유가족인 정은용, 정구도, 양해찬, 정구호, 서정구 등이 세운 ‘노근리 미군 민간인학살사건 대책위원회’는 사망자 135명, 부상자 47명 등 182명의 희생자를 확인한 바 있다.

3) 1923년 출생하여 2014년 8월 1일 사망하였다.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노근리사건으로 5살 아들과 3살 딸이 사망하고, 부인이 중상을 입는 피해를 당했다. 노근리 미군 양민학살사건 대책위원회 위원장, 노근리사건 희생자 유족회 회장,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 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노근리사건진상규명활동을 주도하였다.

4) AP의 최성훈 기자 등은 노근리사건 보도로 2000년 풀리처상을 수상했다(Hanley, Charles, Choe, Sang-Hun, & Mendoza, Martha, 2002).

별법 제정으로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과거 사정리의 선례를 보여준 사건이 되었다. 이재곤, 정구도(2008, pp. 254-255)는 노근리사건의 진상규명활동을 단순히 미군 전쟁범죄에 대한 단죄가 아닌 인권회복운동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인권사적 측면에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다. 노근리사건의 보도 이후 한국전쟁 중의 다양한 양민학살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기도 하는 등, 노근리사건은 양민학살사건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고(엄찬호, 2013, 2015),

또 이후에 문학, 영화, 음악 등의 문화매체를 통해 다시 한 번 노근리의 기억이 재생산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사회적, 문화적인 치유과정을 거치고 있다(김화선, 2014).

이상에서 살펴본 노근리사건과 관련 활동들을 일반 연혁과 소청/입법활동, 문화활동, 연구조사/교육활동, 연대활동, 언론홍보활동 등 5가지 주제별 활동 연혁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정은용, 1994; 오연호, 1999; 이재곤, 정구도, 2003; 정구도, 2008).

<표 1> 노근리사건 관련 연혁

영역 시기	일반연혁	주제별활동연혁				
		소청/입법활동	문화활동	연구조사/교육활동	연대활동	언론홍보활동
1950	- 7.25.-29. 노근리사건 발발					
1960		- 10. 미군소청사무소에 손해배상청구 제기 - 12.27. 미국정부에게 '미군에 의한 피살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문건발송				
1977			- 10. 증편소설 『버림받은 사람들』(정은용) 발표			
1994	- 6.15. '노근리 미군양민 학살사건 대책위원회' 결성	- 7.5. 주미대사관방문 미국정부의 공식사과와 손해배상 요구 진정서 제출 - 7.6. 한국 대통령 앞으로 진정서 제출 - 10.5. 미국 대통령 앞으로 진정서 제출	- 4.15. 실화소설 『대우리의 아픔을 아는가』(정은용) 출간	- 7월30일 조선인민보 관련 기사 등 주요 증거자료 확보	- 4.29. 연합통신 (국내 최초 보도) - 5.4. 한겨레 - 7.7. 월간지 '말' - 7.7. AFP (외신 최초 보도)	
1997	- 12.29. 영동군 자체진상조사단구성, 조사 실시				- 11. NCKK 방문. - 11. MBC '시사매거진2580'	
1998			- 7.28. 제1회 합동위령제 개최		- 4. NCKK 탄원서 제출 - 6. NCC에 협조공문 발송 - 12.18. NCC, 미국 국방부 사건조사 요청	
1999	- 10.1. 미 클린턴 대통령 노근리사건 진상규명 지시 - 10.2. 김대중 대통령 진상규명지시 - 10.12. 노근리사건대책단 구성 - 10.22. 영동군청-피해자신고 접수시작 - 10.27. 정부-자문위원단 구성 - 11.10. 영동군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한시기구) 설치 - 11.24.-26., 29.-30. 국방부실무조사반, 대책위 현장조사 - 12.14. 한미공동협의회 개최	- 10.2. 한미 정부대상 진상조사촉구 성명서 발표 - 11.8.-18. 대책위와 생존피해자 대표 미국 방문 중 미 국방부고위 관계자면담		- 2. 노근리사건 관련 논문 발표(충북대 인문학연구소)	- 9.30. NCC, 미국 정부에 진상조사, 손해배상촉구 - 10.1.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공동집회 - 10.8. YMCA, 충북연대, 청주경실련, 청주시민회, 연합현장조사 - 전국 59개 시민단체, 진상규명 촉구 - 11. NCC, 피해자와 참전미군 만남 주선	- 9.30. AP, 노근리사건 특종보도 - 11. 미국 내셔널리플 스텝 기자회견

영역 시기	일반연혁	주체별활동연혁				
		소청/입법활동	문화활동	연구조사/교육활동	연대활동	인론훈보활동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0. 미 육군성 장관 현장답사 및 피해자 면담 - 4.18.-19. 사건현장 한미 정밀 기술조사 - 8 미국 내 변호인단 구성 - 10.19. 국회에서 피해 관련 증언 - 12.6. 한미 실무자 회의 - 12.13.-17. 자문위원단 미국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 조사과정에 민간전문가 참여요청 청원 - 2.25. 국무조정실장 앞 청원서 제출 - 2.28.-26. 조사비용 공개 요구 - 5.17. 사건해결촉구 권리대회 - 8.16. 한미 양국 대통령 앞 진정서 제출 - 12.4. 특별법 제정 요구 - 12.6. 미정부 노근리사건 대책단 고위관리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26. 제2회 합동위령제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24. '한국전쟁 50년이 남긴 국제인도법적 문제' 포럼(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학술대회) - 12.4. '노근리 사건 진상규명과 해결방향에 대한 심포지엄'(국회인권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2. 재야단체 미군학살만행진상규명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학살현장조사 - 10.7. 매항리폭격장 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서울역 공동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 신동아, 기사계제 - 12. 한미 조사발표 후 기자회견, 양국 정부의 진상왜곡 호소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2. 한미 진상조사 결과 발표 - 미 대통령 유감 표명 성명서 발표 - 4.20. 한국정부 노근리사건 조사보고서에 대한 반론서 제출 - 9.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용 관련 자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한국정부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재조사요구 - 1.11. 국제사법재판소 재소용 법무부장관 승낙서 요청 - 1.12. 조사결과에 대해 성명서 발표 - 1.9. 피해자 심사 요청 서신 - 2.12. 국무조정실장 앞으로 추모비건립, 유사사건 희생자 조사 요청 - 4.26. 정부에 재조사와 손해배상 촉구 진정 - 5.2. 미 육군성에 재조사 촉구 서신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 노근리사건사건전개회 - 7.26. 위령제 개최 - 11.4.-20. '슬픈 기억의 흔적'(정기분) 사진전 개최 - 12.6.-12. 제3회 노근리 사진전 및 자료전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4. '노근리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의 문제점' 발표(한국현대사연구회 학술대회) - 노근리사건연구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31. NCCK, NCC에 유엔인권위원회 의 제재택 협력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일보, 진상보고서 문제점 심층보도 - 6. 시사주간지 뉴스메이커, 조사에 대한 축소왜곡 장기기획 보도(13개월간) - 6.24. 『주한미군문제 해결운동사 노근리에서 매항리까지』 발간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5. 한국정부 노근리사건 조사보고서에 대한 제반론서 제출 - 4.30. 한미 공동발표문에 대한 반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5. 한미정상회담 의제 채택 요구 - 5.28. 주한미군대사관과 한국정부에 결의서 제출 - 10. '노근리사건의 진상 재조사와 손해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 - 11.7. '노근리미군양민학살사건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청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26. 합동위령제 개최 - 11.20. 사진전 개최 - '노근리' 공연(극단 새벽) - 12. 대책위 50년 활동사 『노근리는 살아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0. '노근리사건의 진상과 교훈'(정구도) 논문집 - 2.19. 국제평화봉사단 대학생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 BBC 'Kill'em All' 방영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12. 노근리사건 특별법안 의원발의 - 6.25. 노근리쌍굴다리 등록문화제 59호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으로 특별법제정 촉구 청원서 제출 - 11.7. 국무총리앞 청원서 제출 - 12.29. 특별법제정촉구 릴기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 ~) 노근리 인권 백일장 개최 - 합동위령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노근리는 끝나지 않았다』 출간 - 4.2. 'The Truth of the No Gun Ri Massacre' 논문집 발간 - 4.25. '노근리의 진상과 교훈' 증보판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9. 노근리인권평화연대 창립 - 5.21. 노근리평화인권연대, 문화방송, 한국해위원조단체협의회 이라크여민아를 위한 공동 성금모금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 '노근리사건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공포 - 7.6.-10.5. 사건희생자 신고접수 - 9.22.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실무위원회 구성 - 10.6-05.3.10. 노근리사건 희생자 신고에 따른 사실조사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 - 6.29. 추모공인조성, 기념관건립요구 성명서발표 				

영역 시기	일반연혁	주제별활동연혁				
		소청/입법활동	문화활동	연구조사/교육활동	연대활동	인문홍보활동
2005	- 5.30. 노근리위령사업 자문위원회구성 - 6.30.-7.18. 노근리사건임시분향소 설치 및 탄두자국 표시 - 9.24. 노근리사건 변호인단의 미국활동보고회		- 소설 『노근리, 그 해 여름』 (김정희 저)	- 6.19.-26. '한미대학 생 노근리 인권평화 캠프' 개최		
2006	- 3.18. 노근리사건 희생자 집단매장지 제보에 따른 현장조사 및 내용 청취 - 3.31. 희생자심사보고서 발간 배부 - 4.22. (사)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 발족 - 11.15. 노근리 소식지 발간배부					
2007	- 3.26. 노근리사건 홈페이지 개설키 - 5.7.-25. 유해발굴 사전 지표조사 - 10.10. 유해발굴 현장설 명회	- 12.21. 특별법 일부개정 명회	- 소설 『노근리 아리랑』 (이동희 저)	- 7.18.-8.20. 제1회 인 권평화 학술문화제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2008	- 4.17. 사건희생자묘역 실시설계 최종보고회		- 11.13. 제1회 노근리 평화상 시상 - 12.14. 노근리미술전 시회	- 1.14. 노근리 사건 자료모음(증보판) 발간 - 6.23.-27. 세계대학생 노근리인권평화캠프 - 11.12. 국제평화학술대회 '인권과 평화' 심포 지엄		- 5.15. 미군양민학살 피 해자 공동기자회견
2009			- 12.10. 평화기원 음악회	- 6.22.-26. 제4회 세계대학생 인권평화캠프 개최 - 12.8. 제3회 노근리 국제평화학술대회		- 9.-10. 청주MBC '노 근리는 살아있다' 3부 작 다큐멘터리 방영

4. 도큐멘테이션 전략 이론

4.1 개념 및 특징

최정태 외의 『기록관리학사전』은 도큐멘테이션을 “특정 분야에서 전문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처리, 축적, 검색, 보급하는 것”, “어떤 주제에 대한 문헌의 집합”, 또는 “기계가독 과일을 작동, 전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록적인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문헌정보학 관점의 해석에 가깝다. 설문원(2010, p. 115)에 따르면, 도큐멘테이션은 기록학 영역에서 ‘기록화’나 ‘기록’ 자체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으며, 행위로서의 도큐멘테이션은 “개인이나 조직, 사회활동, 사건 등의 전모와 변화를 재현하거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록을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생산하는 작업”을 지칭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기록학회가 펴낸 『기록학용어사전』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특정한 지역, 주제, 사건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기록 생산자, 보존기록관, 기록이용자의 상호 협력을 통해 선별하여 수집하는 평가, 선별 방법론”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SAA의 ‘Glossary of Archival and Records Terminology’에서의 정의와 일치한다(Pearce-Moses, 2005). 전통적인 평가의 개념이 특정 문서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면,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더 폭넓은 영역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Richard Cox(1996, p. 144)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개별 기록이 아닌 존재하는 기록들의 전 영역을 고찰하는 기록 평가를 위한 분석적 방법론이라고 논하였다. 한편, Hinding(1981, p. 534)은 “생성되고 있는 정보의 총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아키비스트와 매뉴스크립

트 큐레이터가 보존을 위해 정보의 어떤 부분을 선별할지,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도큐멘테이션 전략으로 보았으며, Samuels(1998, p. 120)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특성으로 ‘수집정책의 포괄성’과 ‘주제 및 지역에 대한 사전 연구’를 꼽았다.

Malkmus(2008, p. 386)는 이러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정의가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태생적으로 가지는 복잡성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가지는 포괄적 의미를 반영한 정의는 Lewis Bellardo와 Lynn Bellardo(1992)의 ‘A Glossary for Archivists, Manuscripts Curators, and Records Managers’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아카이브 기술의 적용, 기관 아카이브의 생산, 재규정된 획득 정책, 자료의 개발을 통해 어떠한 영역의 인류 활동에 대한 적합한 기록 보유를 보장하기 위해 생산자, 아카이비스트를 포함한 운영자, 그리고 이용자에 의해 설계되고, 증진되고, 실행되는 지속적이고, 분석적이며, 협력적인 접근법”으로 규정하며,

“기록되어야 할 세상에 대한 분석, 고유한 기록의 문제에 대한 이해, 사건의 적합한 기록화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의 공식화”를 주요 요소로 파악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다수 학자들이 논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특성은 <표 2>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Terry Abraham(1991), Bellardo & Bellardo(1992), Samuels & Helen(1998), Pearce-Moses(2005), Malkmus(2008), 설문원(2010) 등은 ‘협업적 선별수집을 위한 방법론’, ‘지속되는 분석적 협력적 접근법’, ‘포괄적 수집 정책’, ‘복수 보존소의 협력적 수집’, ‘다기관의 협력적 수집’ 등의 표현을 통해,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첫번째 특징으로 ‘협력’을 들었다. 다음으로 언급된 특징은 ‘기록의 사전 분석과 기록화 계획 수립’이다. ‘기록에 대한 분석’, ‘주제 및 지역에 대한 사전 연구에 입각한 기록화 계획 수립’, ‘기록화범주와 대상에 대한 사전분석’ 등으로 논해진다. 또한 ‘필요 기록의 생산’이라는 특징이 ‘획득한 기록들의 격차를 메우는 데 필요한 기록의 생산’ 또는 ‘결락된 범주와 대사를 위한

<표 2>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특징

Terry Abraham (1991)	Bellardo & Bellardo (1992)	Samuels & Helen (1998)	Pearce-Moses (2005)	Malkmus (2008)	설문원 (2010)
협업적 선별수집을 위한 방법론	지속되는 분석적 협력적 접근법	포괄적 수집 정책	상호협력에 의한 평가, 선별 방법론	복수 보존소의 협력적 수집 획득한 기록들의 격차를 메우는 데 필요한 기록의 생산	다기관의 협력적 수집 결락된 범주와 대사를 위한 기록 생산 특정 영역에 대한 기록수집
	- 기록에 대한 분석 - 기록문제에 대한 이해 - 기록화 계획의 공식화	주제 및 지역에 대한 사전 연구에 입각한 기록화 계획 수립	특정한 지역, 주제, 사건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 수집		기록화 범주와 대상에 대한 사전분석
				자문조직 운영	자문조직 운영

기록생산'으로 표현되었다. 그 외 '지역, 주제, 사건 등의 특정 영역에 대한 수집', '자문조직의 운영' 등이 전략의 특징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협력 수집', '특정 영역의 수집', '결락 기록의 생산', '기록화 계획', '자문조직' 등 5가지 특성을 갖는 평가, 선별 방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4.2 연혁

아키비스트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기초는 Schellenberg의 기록가치론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Johnson, 2008, p. 192). 평가에 대한 아키비스트의 관여는 역사를 왜곡하고, 기록의 공평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기록 생산자와 관리자만이 행정적, 관리적 필요에 근거하여 평가에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Hilary Jenkinson으로 대표되는 유럽의 평가 전통은 아키비스트를 단순한 기록의 관리자로 단정하고 있었다(Duranti, 1994, p. 334). 반면, 증거적 가치와 정보적 가치를 평가의 기준으로 제시한 Schellenberg의 주장은 아키비스트에게 단순한 행정적 책임을 넘어 폭넓은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Boles & Greene, 1996).

1960년대 서구사회를 관통한 사회운동과 변화 속에 아키비스트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되었고, 이는 1970년 SAA 연례회의에서 발표된 Howard Zinn(1997)의 논문 'The Activist Archivist'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그는 아키비스트들이 엘리트 중심의 기록이 아닌 평범한 민중의 삶을 담아낼 기록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스스로 관리, 보

존하는 기록들이 사회 주류를 향해 편향되어 있는지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를 형성하는 주체는 소수의 주류 세력이 아닌 평범한 민중들이기에, 주류를 향한 아키비스트의 편향성은 주류 중심의 일그러진 역사기록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편향된 기록들은 종국에 주류의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록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아키비스트는 평범한 민중의 삶, 욕망, 욕구에 대한 기록화의 새로운 세상을 축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72년 SAA 위원회는 Zinn이 주창한 것과 같이, 매뉴스크립트 수집에서의 엘리트주의를 경계하고 나섰다(Johnson, 2008, p. 191). 이러한 논의는 1974년 Gerald Ham(1975)의 명연설 'The Archival Edge'와 함께 아키비스트 공동체에서 공식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Ham은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 시대 인류 경험의 대표적 기록을 제공할 책임이 아카비스트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며, 아키비스트에게 현장 속으로 들어가 기록하라고 충고했다.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수집물의 관리 그 이상이어야 하며, 인류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에서 아키비스트는 진정 활동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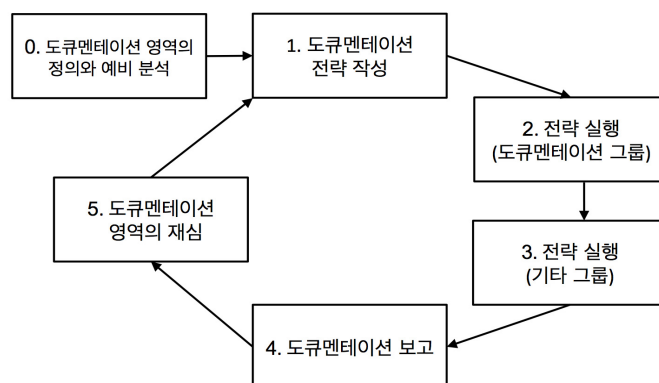
1980년대 들어, 행동주의는 아카이브 전문직 정체성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1981년 Andrea Hinding(1981)이 '미국 대학 및 연구도서관 협회(The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이하 ACRL)' 2차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글에서 보존을 위해 선별할 정보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도큐멘테이션 전략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그는 다수의 아카이브들이 수집정책조차 가지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하며, 전례 없는 문서의 폭발로 특징 지워진 정보화 시대로 진입하는 세계에 대한 조직적 대응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문서의 과잉에 관한 우려는 아키비스트들 앞에 놓인 실제적 요구의 하나가 되었다. 거대한 양의 문서가 야기하는 문제는 어떤 정보의 불필요한 중복과 또 다른 정보의 부재, 게다가 단명하는 특성까지를 포함하였기에 명확한 전략없이 아키비스트들의 행동주의가 실현될 수 없었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Hinding, 1981, p. 534).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1984년 SAA에서 처음 논의되었고(Johnson, 2008, p. 195), 2년 후, Helen Samuel(1986)은 'Who Control the Past?'를 통해 복잡성이 더해가는 현대 사회에서 영속적 기록을 수집하는 책임을 다루는 이론적 틀을 도큐멘테이션 전략으로 명명하며 행동주의 계획을 제시했다. 그리고 1987년 Larry Hackman과 Joan Wornow-Blewett이 아키비스트가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양식과 지침을 제안하기에 이른다.

4.3 실행 모델

Hackman와 Wornow-Blewett(1987, pp. 18-29)이 제시한 도큐멘테이션 전략 모델은 도큐멘테이션 영역의 정의와 예비 분석을 실시하는 사전단계와 5개의 실행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 실행 단계는 첫째,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작성', 둘째, '도큐멘테이션 그룹의 전략 실행', 셋째, '기타 그룹의 전략 실행', 넷째, '도큐멘테이션 보고', 다섯째, '도큐멘테이션 영역의 재심'으로 구성된다.

도큐멘테이션 전략 개발의 첫 단계는 도큐멘테이션 영역 정의와 예비 분석이다. 기능, 주제, 지리적 영역에서의 도큐멘테이션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관심 있는 개인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이 단계의 시작이다. 이 초기 그룹에는 아키비스트, 주제전문가, 그리고 이용자와 생산자 양측의 대표들이 참여한다. 구성원 누구든 도큐멘테이션 영역을 규정하고, 사전 분석을 시작할 수 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각 참여자들은 도큐멘테이션 영역을 조금 더 정확히 규정하고, 현재 상황의 인식을 공유



<그림 1> 도큐멘테이션 전략 실행 모델(Hackman와 Wornow-Blewett, 1987, p. 19)

하며, 어떻게 다음 단계를 진행할 것인지 결정한다.

예비 분석의 첫 번째 목적은 도큐멘테이션 영역의 범주와 경계를 가능한 명확하게 선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예비 논의에 기반을 두고 최초 도큐멘테이션 그룹은 누가 예비 도큐멘테이션 전략서를 작성할 것인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진행할 것인지, 누가 후원할 것인지, 공식적 분석과 작성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와 전문지식은 무엇인지 결정한다.

‘도큐멘테이션 영역 정의와 예비 분석’에 뒤이어, 도큐멘테이션 그룹이 형성되고, 공식적 도큐멘테이션 전략서를 준비한다. 전략서는 1) 현재 도큐멘테이션 상황과 필요에 대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보고 방식을 규정하고 2) 도큐멘테이션 결정을 지원하며 3) 그룹이 미래에 더 나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수행을 육성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의 보고를 장려하는 역할을 한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준비하기 위해 도큐멘테이션 그룹은 ‘도큐멘테이션 영역의 기록 생산, 이용, 운영 방식에 관한 프로파일’, ‘특정 유형 기록의 수집 프로그램의 획득 정책에 관한 데이터’, ‘이전에 아카이브가 보관하고 있던 기록에 대한 데이터’, ‘타 이용자에 의한 기록 이용에 관한 데이터’, ‘이해관계자들의 기록에 관한 관심 또는 우려’, ‘도큐멘테이션 영역과 관련되어 진행 중인 특정 연구’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다. 또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서를 초안하기 위해 도큐멘테이션 그룹은 ‘영구기록으로 남는 기록의 유형’, ‘표본추출에 적합한 영구기록의 유형’, ‘주요그룹과 개인’, ‘도큐멘테이션 환경분석 개선을 위한 부가정보’, ‘기록 생산에 대한 독려’ 등 다양

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노력을 경주할 것을 제안한다.

네 번째 ‘도큐멘테이션 보고’ 단계다. 이 단계는 전체 프로세스에서 독립된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모든 단계에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필수 요소로 규정되고 있다. 도큐멘테이션 보고는 정책, 절차, 도큐멘테이션 행위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우려와 의견 등을 포함한 정성적 보고를 포함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도큐멘테이션 영역의 재심’ 단계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내외부적 환경 및 조건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관련 그룹들과 지속적 상호작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반응적 프로세스라 할 수 있다. 변화하는 조건과 관점에 맞는 영역을 재규정하며, 변화를 이끄는 요소들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이 순환적 모델에서는 재심 과정에서 상당한 재규정의 필요가 지적된다면 ‘기록화 영역 정의와 예비 분석’ 단계가 새롭게 요구된다.

4.4 비판과 의의

Cook(1992, p. 187)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비기록학적 방법론이라고 비판하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추상적 범주 분석이라는 것부터가 잘못이며, 기록의 유기적 일관성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힐난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Menne-Haritz(1994)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지향하는 ‘능동적 수집’ 자체를 부당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기록이 갖추어야 할 중립적, 증거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비판하였다. Boles(1987), Cox(1989, p. 193), Abraham(1996,

p. 51) 등 다수 연구자들은 기록화 전략의 비실용성, 비현실성을 강조하며, 실제 적용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이 모든 사례에서 성공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실패의 사례가 더 많다. 특히, 지역기록에 대한 기록화 전략은 적합하지 않다는 다수의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최신 물리학 역사(History of Recent of Physics)', '성소수자 종교 아카이브즈 네트워크(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Religious Archives Network)' 프로젝트 등을 통해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제한된 상황에서 적용할 시 매우 효과적 도구임이 입증되고 있다(Malkmus, 2008, p. 392; 설문원, 2010, p. 128).

도큐멘테이션 전략에 대한 비판이 주로 실행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었다는 점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즉,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사회의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록화과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다. Johnson(2008)이 주장하였듯이,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여전히 기록학 개론서, 기록전문인들의 업무개발서, 여러 연구논문에 등장하고, 기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기록학 이론으로 사용되게 될 것이다. 특히, 아키비스트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포스트모더니즘 영향하에서,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그 중요성이 더욱 대두된다. 아키비스트들이 평가하고 선별한 기록물이 사회의 역사와 기억을 결정하게 된다는 패러다임에서, 아키비스트의 업무 중 기록물의 '평가와 선별' 업무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평가와 선별' 업무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보아야 할 것이며, 기록물을 매우 큰 맥락에서 바라보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특히 더욱 중요한 이론으로 다가오게 된다(Cox, 2008).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정보의 폭발적 증가 속에 가치 있는 정보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디지털 환경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다시 말해, 정보홍수의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을 능동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의의가 크다(Johnson, 2008, pp. 193-194). 또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아키비스트의 정체성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아키비스트가 사회적, 역사적 기억을 포괄적으로 기록하는 책임을 통해, 더욱 능동적 주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조력하고 있다. 더불어 기록화 전략을 기존의 평가전략과 평가방법론의 대체물이 아닌, 보완적 방법론으로서 활용한다면 그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수 있다(Abraham, 1991, p. 50).

5. 노근리사건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립을 위한 예비 분석

다음에서는 앞서 논한 Hackman와 Wornow-Blewett의 실행 모델을 기반으로 노근리사건 도큐멘테이션 전략 수립을 위한 예비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예비 분석은 초점 그룹과 도큐멘테이션 그룹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분석, 그리고 도큐멘테이션 범주와 경계 결정을 위한 관련 기록의 시기별, 생산자별, 유형별 분석을 포함한다.

5.1 노근리사건 초점 그룹 분석

노근리사건에는 피해자 및 희생자 유가족,

언론인, 연구자 등 직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 그룹이 있다. 그 중 ‘피해자 및 희생자 유가족’ 그룹은 다양한 그룹들과의 관계 속에 단연 중심이다. 사건 당시의 참상을 증언하는 당사자로서, 각기 그룹과의 협력을 통한 진상규명활동은 물론, 오늘의 노근리를 사회적 기억으로 확산시키는 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 ‘피해자 및 희생자 유가족’ 그룹이다. 노근리 미군양민학살사건 대책위원회, 노근리희생자유족회, 노근리국제평화재단, 노근리평화인권연대 등 다수의 단체가 이 핵심 그룹에 속한다. 이들 단체들은 노근리사건과 관련된 서로 다른 세부 영역에서의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다수 구성원과 핵심 운영자들은 피해자 및 희생자 유가족을 중심으로 한 동일 인물들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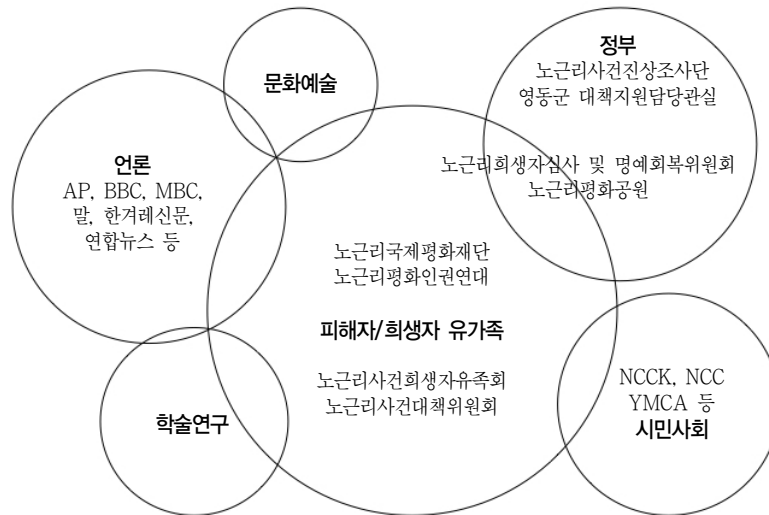
‘피해자 및 희생자 유가족’ 그룹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온 그룹에는 ‘정부’ 그룹과 ‘언론’ 그룹이 있다. ‘정부’ 그룹은 진상규명활동 과정에서 ‘피해자 및 희생자 유가족’ 그룹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노근리진상조사단, 국방부 실무조사반, 한미공동협의회, 한미 실무자회의 등에 참여했거나, 영동군 자체진상조사단, 영동군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실 등 영동군청에서 노근리사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일단의 공무원들이 이 그룹에 속한다. 이 두 그룹 간의 협력 관계는 법률로도 규정되어 있다. 『노근리사건특별법』 제3조 제4항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충청북도지사과 관계공무원, 유족대표 및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여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또한 동법 제4조 제4항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충청북도지사 소속으로 두고, 관계공무원, 유족대표,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언론’ 그룹에는 연합뉴스, AFP, AP 등 국내외 통신사, 문화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신동아, 월간지 말, 주간지 뉴스메이커 등의 인쇄매체, MBC, SBS, 영국 BBC, 독일 ARD 등 국내외 방송사가 포함된다. 이러한 언론보도 활동에도 ‘피해자 및 희생자 유가족’ 그룹은 핵심 취재원으로서 사건의 참상에 대한 증언과 고증을 통해 조력자 역할을 감당하였다.

한편 노근리사건을 포함한 한국전쟁 기간 양민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해온 ‘시민사회’ 그룹이 있다. ‘시민사회’ 그룹은 한미 양국 정부의 진상조사활동 전후로 ‘피해자 및 희생자 유가족’ 그룹과 활발한 연대 활동을 전개한다. 1997년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National Council of Churches)가 ‘피해자 및 희생자 유가족’들의 청원과 진상규명활동에 함께 했으며, 충북연대, 청주 경제정의실천연합, 청주시민회, 매향리폭격장폐쇄 범국민대책위원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다양한 비정부 조직과 시민 단체가 노근리사건 진상규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그 외 노근리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충북대 인문학연구소,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한국현대사연구원, 그리고 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노근리 디지털아카이브 팀 등을 포함한 ‘학술연구’ 그룹이 있다. ‘문화예술’ 그룹은 노근리사건을 사진, 연극, 소설 등 문화예술의 형식으로 이야기한 일단의 문화예술인 집단이다.



〈그림 2〉 노근리사건 초점 그룹

사회정치적 발언이 제한되었던 1970년대 노근리사건 피해자 정은용은 중편소설 『버림받은 사람들』로 노근리사건의 진실을 알리고자 했고, 1994년 실화소설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를 출간하여 노근리사건을 세상에 알리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 외 노근리사건을 주제로 한 문학작품으로는 2005년 김정희의 『노근리, 그 해 여름』, 2007년 이동희의 『노근리 아리랑』 등이 있다. 2003년부터는 매년 ‘노근리 인권백 일장’이 개최되고 있으며, 사진전, 음악회 등을 통한 노근리사건 희생자 추모 행사가 지속되고 있다.

이상의 각 그룹들 간의 관계를 도식화 하면 〈그림 2〉와 같다. 노근리사건 자문조직은 이러한 다양한 그룹의 대표자들로 구성될 수 있다.

5.2 노근리사건 도큐멘테이션의 범주

지역에 관한 포괄적 기록화의 실패 사례를 통

해 인식된 도큐멘테이션 전략에 대한 우려와 달리, 노근리사건 도큐멘테이션의 범주는 1950년 7월 노근리학살사건이라는 단일 사건과 이후의 진상규명활동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집중적 설정이 가능하다.

노근리사건의 관련 기억과 기록은 첫째, 1950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의 사건에 대한 증거적 가치를 지니며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사건기록’, 둘째, 1960년부터 2003년까지의 ‘진상규명활동기록’, 셋째, 『노근리사건특별법』이 제정된 2004년을 기점으로 하여, 2010년 노근리 평화공원 건립 활동을 거쳐 오늘에까지 확산, 공유, 재생산되고 있는 노근리사건 ‘추모 기억’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진상규명활동기록은 1960년부터 청원과 진정을 통한 개인적 진상규명활동이 전개되었던 1기, 1994년부터 국내외 언론보도와 조직적 활동을 통해 진상규명활동이 본격화되었던 2기, 1999년부터 한미 양국 정부의 진상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공방이 전개된 3기로 다시 구분된다. 1기 활동은 정은용에 의해 주도된다. 정은용은 1960년부터 지속적인 청원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며, 1970년대에는 노근리 사건을 문학작품의 형식을 빌려 알리려는 노력을 벌였으나, 당시 주류적 시대적 상황은 노근리의 진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정은용의 진상규명활동은 대항적 기억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다. 2기 활동은 1994년 4월 정은용의 실화소설 출간과 함께, 같은 달 연합뉴스의 최초 보도, 5월 한겨레신문 보도, 7월 월간 말지와 AFP 보도, 그리고 동년 6월의 '노근리미군양민학살사건대책위원회'의 결성으로 문을 연다. 본격적인 언론과 조직활동을 통해 노근리의 진상이 널리 알려지게 되는 시기였다. 1999년 AP의 보도는 노근리사건의 진상을 전세계적으로 알리면서, 한미 양국 정부의 진상조사활동을 촉발하는 계기를 만들면서 3기 진상규명활동을 열었다. 이와 같은 시기별 구분에 따른 주요 기록생산자와 기록 유형은 <표 3>과 같다.

첫째, 노근리사건의 진실을 증거하는 기록의 주요 생산자는 한미 양국 정부 당국과 생존 피해자 및 희생자 유가족이다. 특히, 미국 군과 정부가 남긴 기록들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참전 군인들의 구술기록은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록이다. 이 기록들은 대부분 행정문서, 군사문사가 주를 이루며, 구술기록도 중요한 증거적 가치를 지닌다.

둘째, 진상규명활동기록이다. 진상규명활동 1기의 주요 기록생산자는 정은용을 포함한 생존 피해자 및 희생자 유가족이다. 이들이 남긴 기록의 유형은 청원서, 탄원서, 구술 및 관련 기

록 등이다. 이 시기 기록의 대부분은 정은용에 의해 주도적으로 생산, 수집, 관리된 것으로 파악된다. 2기에 들어서 주요 기록생산자의 폭은 크게 넓어진다. 정은용은 여전히 주요 기록생산자이지만, 여기에 '노근리 미군 양민학살사건 대책위원회', '노근리사건 희생자 유가족회'의 조직 구성과 활동을 통한 기록이 생산되기 시작하였으며, 언론사, 시민사회단체, 정부기관 등이 노근리사건 기록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3기에 접어들어 다양한 관련 그룹의 참여는 기록 유형의 다양화로 이어졌다. 다수 언론으로부터의 기사, 방송 등 언론보도 기록이 축적되기 시작했고, 다수 조직으로부터의 성명서를 포함한 활동 기록이 생산되었다. 노근리사건에 대한 한미 양국 정부의 진상조사에 따른 기록이 생산된 것도 이 시기다. 이와 함께, 노근리사건에 대한 학술 연구도 본격화되었다. 반세기 가까운 진상규명활동 중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기록이 활발히 생산된 시기로 평가할 수 있다. 진상규명활동기록의 유형은 크게 문서, 청원서, 탄원서, 성명서, 학술논문, 자료집 등의 인쇄매체기록과 사진, 방송영상물 등의 시청각기록으로 나눌 수 있다.

셋째, 추모 기록이다. 노근리 사건의 신원이 이루어진 2004년 이후 기록의 폭은 예술기록과 디지털 아카이브로 확대되었다. 노근리사건을 기억하는 예술인들의 작품과 공연들이 등장했고, 제한적이거나 일부 관련 기록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디지털자료관이 노근리평화공원 웹사이트에 구축되었다. 학술대회, 인권캠프, 인권평화상 시상 및 관련 문학작품 공모, 영화 제작, 사진전, 음악회 등 노근리사건을 추모하는 다양한 학술 및 문화예술 행사가 정례화되

〈표 3〉 노근리사건 기억과 기록의 시기별 구분 및 주요 기록 생산자

시기구분	주요 기록생산자	기록 유형	
사건기록 (1950.7.25.-29.)	미국 정부, 한국 정부	정부 행정문서, 군사문서	
	생존 피해자 및 희생자 유가족	구술기록	
	참전 군인	구술기록	
진상규명활동 기록 (1960-2003)	1기	생존 피해자 및 희생자 유가족(정은용)	
	2기	노근리 미군 민간인학살사건 대책위원회 등	문서(청원서, 탄원서), 사진, 구술기록, 출판물
		정부기관(영동군 자체진상조사단 등)	공문서
		언론	신문기사, 방송영상물
	3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문서
		노근리 미군 민간인학살사건 대책위원회 등	문서(청원서, 탄원서), 사진, 구술기록, 출판물
		정부기관(노근리사건대책단 등)	공문서, 자료집
		언론	신문기사, 방송영상물
		시민사회단체	활동기록, 문서(성명서 등), 출판물
	추모 기록 (2004-)	학술연구자	학술연구논문
문화예술가		사진, 연극	
노근리평화재단,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		행사기록(인쇄물, 영상물), 활동기록, 출판물	
정부기관		공문서, 자료집	
언론		인쇄물, 방송영상물	
학술연구자	학술연구논문, 학술대회자료		
문화예술가	사진, 음악		

였고, 이를 통한 기록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더불어, 노근리사건 관련 기록은 다국어로 구성되었다는 또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국 군 당국과 행정부의 문서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희생자 유가족이 남긴 청원서와 탄원서 등 상당수가 국문과 영문 문서로 함께 남아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언론으로부터의 보도 역시 노근리사건 기록에 포함되어 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노근리사건 도큐멘테이션의 범주를 '사건기록', '진상규명활동기록', '추모 기록'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대분류 속에서 주요 생산자를 출처로 삼아, 이를 다시 연혁별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근리사건 도큐멘테이션의 씨줄과 날줄로 삼

고자 한다.

5.3 향후 과제

본 연구가 예비 분석에 기반을 두고 수행해야 할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기록생산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특징 중 하나가 '협력 수집'인 것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생산자에 의해 다양한 유형으로 남겨지고, 또 축적되고 있으며, 다국적 성격을 띠고 있는 노근리사건 관련 기록의 수집을 위해서는 협력이 최우선 과제다. 이는 '피해자 및 희생자 유가족' 그룹을 중심으로 각각의 관련 그룹들에 산개되어 있는 기록의 전모를 파악하고, 이들과의 협

력 수위를 조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본 연구팀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는 설문원(2008, p. 134)이 제시한 분산 보존과 통합적 재현을 지향하며, 각각의 주요 기록 생산자들과의 '연계'에서부터 '중개', '미러링', '서비스', '장기보존'에 이르는 다양한 협력 수준을 제고하고자 한다.⁵⁾

둘째, 성공적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다기관의 협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관련 이해관계자,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의 성공적 운영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성패가 달린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자문위원회 내의 협력 및 조정은 핵심 요건이다. 자문위원회 구성의 적절성과 운영방식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여, 어느 한 그룹, 어느 한 개인에 의해 주도되는 자문위원회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문위원들의 참여를 고취시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자문위원들을 거수기, 들러리로 세우는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 이에 자문위원들의 실질적 참여와 자문 의견에 대한 구현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 자문위원회의 실행력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큐멘테이션 그룹의 모든 활동은 전문성과 활동성을 담보한 자

문위원회의 활동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노근리사건 도큐멘테이션 계획이 필요하다. 이 계획에는 산개된 관련 기록의 현황 파악, 결락된 기록의 파악과 생산, 주요 보존 기록의 관리 부실에 대한 대책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팀은 관련 기록의 현황 파악과 여러 차례의 노근리평화박물관 수장고 조사, 정리를 통해 노근리사건 기록관리에 대책이 절실함을 확인하였다. 그 동안의 활동이 진상규명과 신원에 집중되어 있었던 탓에, 관련 기록의 기록학적 관리는 부재한 상황이다. 조직되지 않은 채, 산재되어 있는 기록은 목록조차 부재하며, 수장고에 보존된 기록의 정리 상태, 보존 상태는 시급한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문위원회와 협업 그리고 초점 그룹 및 주요 기록생산자와의 높고 낮은 수준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장기적 관점의 기록관리와 보존 계획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6. 맺음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한다. 노근리의 아픈 그날을, 지난했던 진상규명활동의 한걸음, 한걸음을 기억하고 기록해야 하는

5) 설문원(2008, p. 143)은 ACRL이 회원도서관 간의 협력적 장서관리를 위해 만든 도구인 컨스펙투스(Conspectus) 모형을 기반으로 디지털 도큐멘테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수집 수준을 '연계', '중개', '미러링', '서비스', '장기보존'으로 구분하였다. 각 수준의 기관저장, 유지관리 책임, 기록통제권, 접근권한 유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관저장	유지, 관리책임	기록통제권	접근권한
연계	-	-	-	-
중개	-	-	-	△
미러링	△	-	-	○
서비스	○	○	○	○
장기보존	○	○	○	○

이유다. 그리고 그 기억과 기록이 있는 한 노근리는 현재 진행형이다. 실천적 아키비스트에게는 노근리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의 기억과 기록을 남기고, 보존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다. 본 연구팀은 그 무거운 책무의 작은 한 자락을 나누어 짊어지고자 한다.

본 논문은 '협력 수집', '특정 영역의 수집', '결락 기록의 생산', '기록화 계획', '자문조직'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노근리사건 관련 기록의 평가, 선별 방법으로 삼고, Hackman와 Wornow-Blewett(1987)이 제시한 실행 모델에 근거하여 노근리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첫 관문인 예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후 도큐멘테이션 전략서 작성, 실행, 재심 등의 한층 더 어려운 과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쉽사리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성공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근리사건이라는 특정 주제 영역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 그룹들과의 협력에 기반 한 수집과 결락 기록의 생산을 가능케 하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노근리사건이라는 사회적 기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는 본 연구팀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론으로 판단되었다. 최근 들어,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국내 연구가 일정한 성과를 축적하고 있는 것에 반해, 특정 사건에 대한 사회적 기억의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 연구는 이제 서툰 첫걸음을 내딛고 있을 뿐이다. Ham의 외침을 되뇌어본다. '현장으로 들어가 기록하라.' 오늘도 차가운 광장 모퉁이, 아득한 굴뚝 위에는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사람들의 눈물과 외침이 있다. 잊혀지고 흐려져선 안 될 사회적 기억을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실천적 논의를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 권순명, 이승희 (2009). 지역 아카이빙을 위한 기록화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21, 41-84.
- 김장환 (2015). 기관기능분석 방법론을 적용한 기록화 전략 사례 연구 - 미국 의회 기록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4, 5-49.
- 김정희 (2005). 노근리, 그 해 여름. 서울: 사계절.
- 김화경 (2012). 마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 전략 - 부산 산복도로 아카이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143-161.
- 김화선 (2014). 노근리 사건을 서사화하는 세 가지 방식.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5), 283-311.
- 노근리사건조사반 (2001). 노근리사건 조사결과보고서.
- 노근리에서 매항리까지 발간위원회 (2001). 주한미군문제해결운동사: 노근리에서 매항리까지. 서울: 깊은자유.
- 노용석 (2015). '장의'에서 '사회적 기념'으로의 전환 -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피해살자 유해 발굴의 역사와 특징. 역사와경계, 95, 207-242.

- 설문원 (2010). 지역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 기록학연구, 26, 103-149.
- 설문원 (2011). 디지털 환경에서의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207-230.
- 설문원 (2012a). 공간 중심의 로컬리티 기록화 모형의 설계.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437-455.
- 설문원 (2012b). 로컬리티 기록콘텐츠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2), 317-342.
- 설문원 (2012c).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2, 3-44.
- 설문원 (2014). 환경갈등의 기록화를 위한 내러티브 설계. 기록학연구, 42, 287-326.
- 설문원, 김정현 (2013). 공간 중심의 연계형 기록화의 실행 방안. 기록학연구, 36, 233-269.
- 엄찬호 (201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에 대한 분노와 치유. 인문과학연구, 36, 585-607.
- 오연호 (1999). 노근리 그 후. 서울: (주)월간 말.
- 오정희, 정연경 (2015). 대통령기록물 수집을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1), 89-125.
- 윤은하 (2012).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33, 3-37.
- 이동희 (2007). 노근리 아리랑. 서울: 풀길.
- 이미영 (2009). 재해 지역의 기록화 사례 연구 - 한신·아와지 대지진 기록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21, 85-116.
- 이승억 (2005). 기록 평가선별 결정 분석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12, 37-80.
- 이승억 (2014). 동시대의 기록화를 지향한 보존기록 평가선별에 관한 제언. 기록학연구, 42, 185-211.
- 이재곤, 정구도 (2008). 노근리사건의 역사적 및 국제법적 성격과 향후과제.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19(2), 235-280.
- 정구도 (2003). 노근리는 살아있다. 서울: 백산서당.
- 정구도 (2008). 한국전쟁기 인권침해 및 역사인식의 문제. 서울: 도서출판 두남.
- 정은용 (1994). 그대, 우리의 아픔을 아는가. 파주: 도서출판 다리미디어.
- 최병수, 정구도 (1999). 동란 초기 충북 영동지구의 민간인 살상사건에 관한 연구(1): 노근리의 미군 대양민 집단학살사건을 중심으로. 인문학지(충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7(1), 245-283.
- Abraham, Terry (1991). Collection Policy or Documentation Strategy: Theory and Practice. American Archivist, 54, 44-52.
- Alexander, Philip & Samuels, Helen (1987). The Roots of 128: A Hypothetical Documentation Strategy. American Archivist, 50, 518-531.
- Bellardo, Lewis & Bellardo, Lynn (1992). A Glossary for Archivist, Manuscript Curators, and Records Managers. Chicago: SAA.
- Boles, Frank (1987). Mix Two Parts Interest to One Part Information and Appraise Until Done: Understanding Contemporary Record Selection Processes. American Archivist, 50, 356-368.
- Boles, Frank & Greene, Mark (1996). Et Tu Schellenberg? Thoughts on the Dagger of American

- Appraisal Theory. *American Archivist*, 59, 298-310.
- Cook, Terry (1992). Documentation Strategy. *Archivaria*, 34, 181-191.
- Cox, Richard (1989). A Documentation Strategy Case Study: Western New York. *American Archivist*, 52, 192-200.
- Cox, Richard (1995). The Archival Documentation Strategy, A Brief Intellectual History, 1984-1994, and Practical Description. *Janus*, (2), 76-93.
- Cox, Richard (1996). The Archival Documentation Strategy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Appraisal Architectural Records. *American Archivist*, 59, 144-154.
- Duranti, Luciana (1994). The Concept of Appraisal and Archival Theory. *American Archivist*, 57, 328-343.
- Ericson, Timothy (1997). 'To Approximate June Pasture': The Documentation Strategy in the Real World. *Archival Issues*, 5-20.
- Hackman, Larry (2009). The Origins of Documentenation Strategies in Context: Recollections and Reflections. *American Archivist*, 72, 436-459.
- Hackman, Larry & Warnow-Blewett, Joan (1987). The Documentation Strategy Process: A Model and a Case Study. *American Archivist*, 50, 12-47.
- Ham, Gerald (1975). The Archival Edge. *American Archivist*, 38, 5-13.
- Hanley, Charles, Choe, Sang-Hun, & Mendoza, Martha (2002). *The Bridge at No Gun Ri: A Hidden Nightmare from the Korean War*. New York: Henry Holt and Co.
- Helen, Samuels (1986). Who Controls the Past? *American Archivist*, 49, 109-124.
- Hinding, Andrea (1981). "Toward Documentation: New Collecting Strategies for the 1980s," in *Options for the 80s: Proceedings of the Second National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Conference Held in Minneapolis, Minn. (Greenwich, Conn.: JAI Press, 1981).
- Horton, Robert (2001). Cultivating Our Garden: Archives, Community, and Documentation. *Archival Issue*, 26, 27-40.
- Johnson, Elizabeth Snowden (2008). Our Archives, Our Selves: Documentation Strategy and the Re-Appraisal of Professional Identity. *American Archivist*, 71, 190-202.
- Malkmus, Doris (2008). Documentation Strategy: Mastodon or Retro-Success? *American Archivist*, 71, 384-409.
- Menne-Haritz, Angelika (1994). Appraisal or Documentation: Can We Appraise Archives by Selecting Content? *American Archivist*, 57, 528-542.
- Pearce-Moses, Richard (2005). *A Glossary of Archival and Records Terminology*.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Robert Horton (2001). Cultivating Our Garden: Archives, Community, and Documentation. *Archival Issues*, 26, 27-40.

Zinn, Howard (1977). Secrecy, Archives and the Public Interest. *The Midwestern Archivist*, 2, 14-26.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oi, Pyong-su & Chon, Ku-do (1999). A Study on A Massacre of Civilians in Young-dong area, Chung-chong Province in the Early Stage of the Korean War(1) 6.25. *Journal of Humanities*, 17(1), 245-283.

Chung, Eung-Yong (1994). *Do You Know Our Pain*. Paju: Dari Meida.

Chung, Koo-do (2003). *No-Gun Ri is alive*. Seoul: Baksan Seodang.

Chung, Koo-do (2008). *Issu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historical awareness during the Korean War*. Seoul: Doo-Nam Publishing co.

Eom, Chan-Ho (2013). For the Massacre of Civilians in the Korean War, Anger and Healing. *Human Sciences Research*, 36, 585-607.

Kim, Hwa-seon (2014). Three ways to narrate Nogeun-ri incident. *Literature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15), 283-311.

Kim, Jang-hwan (2015). A Case Study on Documentation Strategy Applying the Institutional Functional Analysis Methodology.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4, 5-49.

Kim, Jeong-Hee (2005). *No-Gun Ri, That year's summer*. Seoul: Sagaejeol.

Kim, Wha-kyung (2012). Acquisition Strategy for Constructing Local Archives: The Case of Busan Sanbokdoro Archives. *The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12(2), 143-161.

Kwon, Soon-myung & Lee Seung-hwi (2009). A Study on Documentation Strategy for Archiving Locality.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1, 41-84.

Lee, Dong-hee (2007). *No-Gun Ri Arirang*. Seoul: Pulgil.

Lee, Jae-gon & Chung, Koo-do (2008). Historical Characteristic of No Gun-Ri Incident, its Characteristics in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and Future Tasks. *Chungnam Law Review*, 19(2), 235-280.

Lee, Mi-young (2009). A Case Study on the Documentation in a Disaster Area - On the Basis

- of Great Hanshin-Awaji Earthquake.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1, 85-116.
- Lee, Seung-eok (2005). Analysing Archival Appraisal and Selection Decision: Theoretic Approach.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2, 37-80.
- Lee, Seung-eok (2014). Archival Appraisal Strategy and policy for documentation of Contemporary Society.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2, 185-211.
- No Gun Ri Massacre Investigation Party (2001). No Gun Ri Massacre Investigation Report.
- No Gun Ri to Maehyangri Publication Committee (2001). Nogunri to Maehyangri: history of Korean People's Movement for Solution of US Korea Issues. Seoul: gipunzau.
- Noh, Yong-Seok (2015). From Individual Funeral to Social Commemoration - The historical process and symbolic meaning in the exhumation of civilian massacres around Korean war. *History & the Boundaries*, 95, 207-242.
- O, Jung-hee & Chung, Yeon Kyoung (2015). A Study of the Use of Documentation Strategies for Presidential Records Collection. *The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Society of Korea*, 15(1), 89-125.
- Oh, Youn-ho (1999). Nogun-ri thereafter. Seoul: Monthly Mal.
- Seol, Moon-won (2010). Directions of Implementing Documentation Strategies for Local Region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6, 103-149.
- Seol, Moon-won (2011). A Study on Documenting Locality in Digital Environment. *The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Society of Korea*, 11(1), 207-230.
- Seol, Moon-won (2012a). Designing a Space-based Locality Documentation Model. *Journal of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4), 437-455.
- Seol, Moon-won (2012b). Directions of Archival Contents Development for Documenting Localit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Science Society*, 43(2), 317-342.
- Seol, Moon-won (2012c). Building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for Documenting Localiti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2, 3-44.
- Seol, Moon-won (2014). A Design of Narrative Structure for Documenting Environmental Conflicts: Case of Mi-ryang Transmission Towers Construction Conflict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2, 287-326.
- Seol, Moon-won & Kim, Jung-hyun (2013). Implementing Space-based Networked Documentation for Donghae-Nambu Railway Areas in Busan Metropolitan City.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6, 233-269.
- Youn, Eunha (2012). Communities and community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3, 3-37.